

# 전북지역 가축사육 마릿수 증가

### 10년전보다 한·육우 13만마리 증가... 사육가구수는 7800곳 감소

전북지역의 가축사육 마릿수가 지난 10년 전보다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북지역 가축사육 가구수는 지난 10년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전북지역 가축사육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가축사육 마릿수는 한우, 육우, 돼지, 닭 등은 증가하고 젓소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와 육우는 총 32만3,000마리로 10년 전보다 13만마리(67.3%)가 증가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국내산 쇠고기 소비가 확대되고, 소 이력추적제 시행 등으로 한우육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돼지는 121만6,000마리로 10년 전보다 20만 9,000마리(20.8%) 증가했다. 육류 소비량 확대와 산지 돼지고기의 가격이 좋아 사육 마릿수도 함께 뛰어나온 것으로 보인다.

닭 역시 3,12만2,000마리로 지난 10년 전보다 934만5,000마리(42.7%)가 증가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요 대체로 닭고기 소비와 계란가격 상승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젓소는 3만마리로 지난 10년전인 3만5,000여마리 보다 5,600마리(-15.8%)가 감소했다. 이는 원유생산조질 정책 시행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6월 기준 전북지역 한우 사육 가구수는 8,400가구로 지난 10년전보다 7,800가구(-48.1%)가 감소했다.

또 가구수 사육규모별로 보면 20마리 미만은 9,071가구(-65.5%) 감소했고 20마리 이상은 1,288가구(55.0%)가 증가했다. 소가력 하락,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부담 가중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에 선정돼 사육규모 20마리 미만 가구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 사육가구수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 돼지 사육가구수는 517가구로 지난 10년전 보다 1,198가구(-69.9%)가 감소했다. 그러나 축사 현대화 설비 등 대규모 사육변화등으로 사육수는 증가했다.

닭 사육 가구수는 소폭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 닭 사육가구는 602가두로 지난 10년 전보다 127가구(-2.0%)가 감소했다.

젓소는 사육수와 사육 가구수가 동시에 감소했다.

2016년 6월 기준 젓소 사육가구수는 327가구로 지난 10년 전보다 228가구(-41.1%)가 감소했다.

특히 전북은 전국(-37.4%) 대비 사육가구수가 많았다. 또 젓소 사육규모별 가구수는 100마리 미만 276가구(-56.3%)감소했고 100마리 이상은 48가구(73.8%)가 증가했다. 이는 소규모 사육 위주에서 목장의 규모화 및 전업화, 사육여건 개선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신광영기자

# 도내 중소기업에 추석 특별자금 100억 지원

### 한국은행 전북, 내달 13일까지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강성대)가 도내 중소기업에 추석 특별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자금은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각 영업점을 통해 22일부터 9월13일까지 업체당 5억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이내에서 1년간 지원된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19일 "추석(9월15일)을 앞두고 단기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특별자금이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여성CEO MBA 교육 개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영자)는 오는 8월23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여성경제인 역량 강화를 위한 '2016년 여성CEO MBA 교육' 협상스킬 과정을 개최한다.

여성CEO 및 기업의 여성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MBA과정은 기업 경영 및 판로개척에 필요한 협상스킬 증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경영에 필요한 조직 내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제 사례 중심의 현장 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현직 아나운서, 흡소핑 마케터, 비즈니스 협상전문가 그리고 조직관리 분석 컨설턴트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박영자 회장은 "협상은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오도록 하기위해 대립하거나 타협하는 Zero-Sum게임이 아닌 상대방과 이해득실을 조정하여 쌍방이 모두 이익을 얻을수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Win-Win커뮤니케이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협상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제공 기업의 위극 극복과 전북지역 경제 견인차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지원한 소재의 네파 아이스쿨드 티셔츠(왼)와 밀레 쿨링 쿨드 옛지(오른쪽)

# 패션업계, 쿨링 제품 '인기몰이'

### 폭염에 기능성 의류 소비 늘어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더위를 잡아줄 쿨링(cooling)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특히 한낮의 최고기온이 연일 30도를 넘어가면서 기능성 의류를 찾는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가정용 전기 누진세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가정이 늘면서 쿨링제품의 판매율이 치솟고 있다.

프랑스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자체개발 냉감 소재 '쿨드엣지(Cold Edge)' 적용 반소매 티셔츠류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쿨드엣지(Cold Edge)란 MPE(밀레 에델바이스홀딩스)가 자체 개발한 쿨링 기능성 소재로,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 원단에 고착된 기능성 폴리머(Polymer)가 부풀어 오르며 수증기 형태의 땀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냉감 효과를 발휘해 정상 체온을 회복시켜준다. 때문에 땀을 빠른 시간 안에 건조시켜 옷이 몸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일이 없어 청량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특히 직장인들도 착용 가능하게끔 지나치게 캐주얼한 느낌을 줄인 콜비즈룩 스타일을 다양하게 선보여 출시 초기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왔다.

밀레 영업본부 조지호 이사는 "쿨드엣지 티셔츠의 좋은 반응은 면과 같은 천연 소재 대비 냉감 소재가 착용감이 한결 쾌적하다는 걸 알게 된 소비자층의 재구매 및 입소문 효과"라며 "특히 올해 평균기온이 10도 이상 높았기 때문에 바캉스를 준비하는 직장인이나 가족 단위 구매객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패션기업 세정의 웰메이드가 올 여름 시즌을 겨냥해 선보인 비즈니스맨을 위한 콜비즈룩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디안 반바지의 경우 지난 7월 판매율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중 멜라지 소재를 활용, 톤온톤 배색을 더한 인디안 7부바지는 지퍼 포켓과 사이드 밴드를 적용, 우수한 착용감과 높은 활동성을 자랑해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 청량한 터치감으로 한층 강화된 쿨링효과가 돋보이는 인디안 나일론 스트레치 반바지는 마이크로 체크패턴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콜비즈룩을 연출하기에 더없이 좋은 제품으로 평가된다.

웰메이드 관계자는 "2년 복장을 허용하는 회사도 많지만 주위 시선 때문에 못 지켜지는 곳이 많다"며 "하지만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긴바지를 고수했던 직장인들이 반바지를 시도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뉴시스

# 완주삼례읍 호남고속도로, 만경강교 교량 보수공사로 운행 제한

### 22일~31일 주말 제외하고 오후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문명국)는 이달 22~31일까지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171.1km 지점 만경강교 교량보수공사를 위해 1, 2차로를 교대로 운행 제한한다.

이번 운행제한은 교량 노면 포장부

파손에 따른 포트홀을 보수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사는 27, 28일 주말을 제외하고 총 8일간 진행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총 17시간이다.

22일부터 28일까지는 2차로가, 29일

부터 31일까지는 1차로가 제한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공사기간 교통제한시간에 만경강교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안전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작업구간 제한속도(60km/h)를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063-714-6126)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 'JB플라자' 로 추석 온라인 대목잡기 나선다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무료배송비 지원 등 프로모션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추석맞이 도내 기업과 농가를 위해 JB플라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대목 잡기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JB플라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제통상진흥원과 연관된 우체국 e-post, 네이버 육선 쿠팡, 위메프, 골라켓, 11번가 등 온라인 채널을 모두 활용할 예정이다.

도내 100여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할인, 무료배송비 지원, 경품이

벤트 쿠폰증정, 소풍물 내 배너광고 등 각종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유통채널 MD들과 연계 협의를 통해 추석맞이 인기 상품인 과일, 고기, 채소, 버섯, 인삼, 생선 등 다양한 제품으로 진행되며, 가격대별로 선물 명품선물 등 구매 목적에 따라 간편하게 상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도청 중앙광장에서 진행될 '생생경제 한가위큰잔치'와 연계, 도내 농·축·수산물 생산 농가와 기

업, 그리고 소비자의 민담을 주선할 방침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갈수록 악화되는 불경기에 신음하는 도내 기업들에게는 작더라도 희망을 주고 일할한 소비자에게는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취지로 마련됐다"면서 "한가위를 맞아 도민들의 많은 애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현재 참여업체를 8월 24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경제통상진흥원 JB플라자 담당자(063-711-2034)에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